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아리코재팬, 고객정보 유출 최대 23만 건 예상

□ 외국계 생명보험회사 아리코재팬의 고객정보 유출 건수가 최대 23만 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밝혀짐.

- 아리코재팬은 고객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처음 공개했던 올해 8월에는 정보유출 건수가 18,184건으로 더 이상의 추가 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으나, 자체 조사 결과 14,175건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현재 총 32,359건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.

* 2009년 8월 3일 KiRi Weekly 해외금융뉴스 '아리코재팬, 고객정보 대량 유출' 참조

-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소 46만 건의 고객 정보에 대해 부자연스러운 접근이 있었고, 이 중 최대 절반에 해당하는 약 23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
□ 아리코재팬은 자체 조사를 통해 중국 위탁 기업 직원이 고의로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중국 수사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을 천명함.

- 아리코재팬은 자체 조사를 통해 2008년 3월 시스템 위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 소재 회사의 한 직원 ID로 고객정보가 보관된 서버에 불법적인 접근이 수차례 있었다는 것을 밝혀내고, 중국 수사 당국과 협조해 해당 직원을 연내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함.
- 그러나 문제의 직원이 자신의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부정 유출된 데이터의 행방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등, 조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.
- 아리코재팬은 최초 정보 유출이 확인된 18,184명의 고객에게 사과의 의미로 1만 엔 상품권을 보낸데 이어, 이번에 새로 유출이 확인된 고객 14,175명에게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.

(마이니치신문, 시사통신, 11/11)